

# 최초의 개혁주의 윤리학자 마틴 부셔 (Martin Bucer, 1491-1551)

부셔는 주로 남부 독일의 개혁과 신학자이자 교회 조직가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정치가로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독일 남부의 알자스(Alsace) 지방의 슐레트슈타트(Schlettstadt = 불어, Selestat, 16세기 당시는 독일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프랑스에 속함)에서 태어났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1507년경에 고향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회에 수도사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뿐 아니라, 오래된 알자스적인 인문주의 정신을 배웠다.

수도회의 선배들은 그가 학문을 연마하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1517년 1월에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로 보냈는데, 재능이 풍부한 젊은 부셔는 로페르담 출신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의 저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1518년 봄에 열린 하이델베르크 논쟁(the Heidelberg Disputation)에서 부셔는 루터

1523년 5월 초에 부셔는 파문된 피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즉시 초기 단계의 개혁 운동에 착수했으며 자신의 첫 저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을 출판함으로써 신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을 필두로 수많은 저술들을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초기의 주석들도 있다.

(Luther)의 영향을 심대하고 결정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런 영향들로 인해 부셔는 자신의 독립적인 신학을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

부셔는 1521년 4월 29일에 재속 사제가 되었고 프란츠 폰 지킹엔(Franz von Sickingen)과 울리히 폰 후텐(Ulrich von Hutten)과 같은 기사들의 씨름에서 몇 년간 어수선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또한 1522년에는 알자스 지방의 한 도시인 바이췌부르크(Weissenburg)에 개혁 운동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1523년 5월 초에 부셔는 파문된 피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즉시 초기 단계의 개혁 운동에 착수했으며 자신의 첫 저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을 출판함으로써 신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을 필두로 수많은 저술들을 출판했는데 그 가운데 초기의 주석들도 있다.

예를 들면 1527년에는 공관복음서와 에베소서 에 대한 주석이 출판 되었고, 1528년에는 요한복음과 스바냐 주석이, 1529년에는 시편 주석이, 1536년에는 로마서 주석이 출판되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주석은 후에 증보 출판되기도 했다. 이런 주석보다 앞서 출판된 것은 부셔가 루터파 신학자 요하네스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의 독일어 시편 주석과 루터의 설교들을 라틴어로 번역한 책들이었다. 이처럼 라틴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셔는 후에 루터로부터 라틴어로 된 논쟁문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1529년에 개최된 최초의 교회연합모임인 말부르크 담화(Marburg Colloquy)를 성공적으로 주선한 사람도 다름 아닌 부셔였고, 1539-1541년 사이에 몇 차례 개최된 종교개혁 집단과 로마교 사이의 연합운동 역시 부셔가 앞장 선 일이었다.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루터와 합의를 이끌어낸 1536년 비텐베르크 일치신조(Wittenberg Concord)를 통해 결실을 맺었으나 이 일치신조를 츠빙글리(Zwingli)의 후계자 불링거(Bullinger)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셔가 주도했던 두 연합운동 즉 종교개혁가들 사이의 연합운동과, 종교개혁가들과 로마교 사이의 연합운동이 실패함으로써 부셔의 노력은 비하되고 왜곡되었으며 결국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16세기에 루터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얻은 대중적인 신뢰와 명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슈말칼덴(Schmalkalden) 전쟁에서 개신교 측이 패배함으로써 슈트라스부르크시가 아우스부르크(Augsburg) 잠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셔를 추방한 사건이었다.

25년간 자신이 땀 흘려 쌓아온 개혁운동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부셔는 1549년 초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초청을 받아 영국에 도착하였고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에서 교수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나 얼마가지 못해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부셔의 무덤은 메리(Mary) 여왕에 의해 파헤쳐졌고 부셔의 몸은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화형 되었으나 그녀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부셔가 남긴 최후의 역작은 영국 왕 에드워드 6세

(Edward VI)를 위해 두 권의 라틴어로 작성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 세워져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마감했는데, 이 마지막 주제는 유명한 <실락원>의 저자 존 밀톤(John Milton)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을 만큼 의미 있는 논문이었고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왜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셔를 최초의 윤리학자라고 부르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셔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 때문이다. “참된 신학은 경건하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신학에 대한 부셔의 이러한 정의는 때로 그를 경건주의의 선구자로 오해 받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셔가 결코 16세기 경건주의자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은 그가 믿음의 우선성(priority)을 항상 견지했기 때문이다. 부셔가 최초의 윤리학자로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출판한 최초의 저술에서부터 마지막 저술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대책을 논하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부셔는 창조(creation)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창조(recreation) 즉 중생(regeneration)의 목적 역시 “선한 일(good works)”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인 믿음에 의한 성화는 부셔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부셔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각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은 서로를 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되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그들을 선하고 유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질서 속에서 심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앞에 분을 보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 이웃과 형제의 안녕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만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시한 대로 우리 인생이 바른 질서 속에 세워지려면 우리는 각자 선행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란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든 친구든 항상 타인의 경건과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처음 창조되었던 때, 즉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던 당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직 믿음만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나타남은 다른 피조물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피조물이 태초의 의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주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

어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사람들을 아버지의 자녀됨과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세계 질서에 따라 성령으로 그들을 재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의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각자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알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섬기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아버지의 고상한 최선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믿음은 거짓된 사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거짓된 사랑이란 이생에 대한 사랑, 즉 명예와 재물과 쾌락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 명예나 재물, 혹은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참된 신자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던 본래의 바르고 신적인 본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되 결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자기부인을 실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며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선행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선행이란 우리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결과입니다... 만일 신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런 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그는 게으르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찾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단지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히 선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고 읽으며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

를 말씀에서 떼어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그 열매로 선한 행실을 낳습니다.

• 인용문 출처 : 황대우 (편저),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마르틴 부써의 기독교 윤리』(서울: SFC출판부, 2007), 19-57. = 원문: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I*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0), 46-67.